삶의 향기

하늘과 땅의 살기(殺氣)

김 영 주 삼동인터내셔널이사장, 익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

'음부경(陰符經)'에 "천발살기(天發殺氣)면 이성역수(移星易宿)하고 지발살기(地發殺氣)면 용사기육(龍蛇起陸)한다"는 말이 있다. "하늘이 살기를 발하면 별들이 자리를 옮기고 땅이 살기를 발하면 용과 뱀이 육지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다.

'음부경'을 '황제음부경(黃帝陰符經)'이라고도 한다. 본래 황제가 지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분명치 않다. 또는 도교의 확립자인 북위(北魏) 때의 도사 구겸지가 지어서 명산(名山)에 숨겨놓고 후세에 전했던 것을 당대의 이전(李筌)이 숭산 산〈崇山〉의 석실에서 발견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다. 다만 이 경은 중국 도교의 경전으로 예로부터 기서(奇書), 비서(秘書)라고 하여 은밀히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음부경'을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음부경'은 내단(內丹) 사상을 중시하는 선가서로서 수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고전의 하나로 그 내용에 신비적인 측면이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이 살기(殺氣)를 발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우주에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다. 살기를 발할 경우, 별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신비적인 것만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행성들이 지구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으며, 지구는 우주에 떠도는 수많은 행성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주변의 현실에서도 본다면 천둥번개가 치는 것이 하늘의 살기이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는 길목에서 눈과 서리를 내리는 것 역시 살기이다. 즉 숙살만물(肅殺萬物)은 하늘이 살기를 발하는 한 현상인 것이다. 땅의 살기(殺氣)도 그렇다. 지진이나 가뭄, 홍수, 화재 등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이것이다. 오늘날 지구가 온난화 되고, 자원이 고갈 되며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으니, 과거에 비해 땅이 살기를 발할 수 있는 것은 더 광대하다. 용과 뱀 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극한 고통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는 아귀다툼의 땅으로 전락할 지도 모를 일이다.

소태산 대종사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
침범을 반성하고 기후변화 줄이기 위한 행동백신

그러나 하늘은 살기뿐만 아니라 생기(生氣)도 발한다. 우주에는 살기와 생기가 아울러 작용하며 근본적으로 상생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우주의 성주괴공(成住壞空) 이치를 본다면 이 우주는 생기와 살기가 살활(殺活) 자재하여 유기체적으로 인간의 생로병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는 하늘과 땅의 살기이다. 욕망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 온 인간에 대한 자연의 살기인 것이다. 지구는 코로나19의 살기로 재앙의 시대가 되었다. 9,000만 명이 확진 되었고 200만 명이 사망했다. 앞으로 희생자가 더 얼마가 될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인류가 직면한 비참한 시련이다. 코로나는 비대면 시대를 불렀고 여행을 중단시키고 생산과 수요의 붕괴를 가져와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코로나는 인간이 생태계를 무시한데 대한 자연의 대응"이라 했다. 지극히 맞는 말씀이다. 코로나19 감염 재앙은 인간의 이기심이 초래한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이 엄청난 천지(자연)의 살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제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을 위한 지구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서 자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질주하는 탐욕의 열차에서 내려와 자연과 공존하려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리이타는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더불어 잘 사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서로 연결돼 있다. 말이 없는 바이러스는 인간이 만든 국경을 무시하고 끝없이 이동한다.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 대륙이 코로나19를 이겨내야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로 말한다. 경외심은 자연에 대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은 자연에 대한 침범을 반성하고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행동백신이다.

인류는 자리이타의 마음, 자연에 대한 경외심이 자연의 살기를 극복하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독자의 창

112허위신고는 근절되어야 한다

설을 앞두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112신고에 대하여 하나하나 신속하게 출동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순찰차는 한정되어있는 이 때 112로 허위 및 장난으로 신고로 신속하고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허위, 장난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내 가족, 내 이웃이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기회를 빼앗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자.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내용의 정도가 중하거나 상습, 허위 장난 신고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허위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112허위신고 근절 및 어린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립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를 개최하여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들의 골든타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112 허위장난 전화는 근절되어야 한다.

/황건(군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BD

발행·편집인 박명규
인 쇄 인 우순금

안내 / 063) 230-5700 FAX / 063)231-832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광고 / 063) 230-5714 구독&독자서비스부 / 063) 230-5712
제보 사회부 / 063)230-5850 경제부 / 063)230-5840 문화교육부 / 063)230-5818
정치부 / 063)230-5821 사진팀 / 063)230-5842 자치행정부 / 063)230-5840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독자의 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안전교육

영국소녀 틸리 스미스는 2004년 12월 26일 아침에 태국의 푸켓 해안을 걷고 있던 중 바닷물이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듯 부글거리는 모습을 보고 지진해일의 징조임을 알 수 있었다.

틸리는 부모와 그녀가 묵고 있는 호텔 관계자들에게 급히 이를 알려 조기 경보를 내리게 함으로써 이 해안에 있던 100여 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예방에 큰 공을 세웠다.

틸리가 이 같은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2주 전 학교에서 지진해일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 마침 배운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다고 한다.

틸리의 현명한 대처 덕분에 이 해안에서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태국의 다른 해안과 섬에서는 5,400여 명이 숨졌다.

틸리의 지진해일 경고를 '한 아이의 무심코 던진 말이다'라고 여겨 어른들이 수수방관하는 자세였다면 이 해안에있던 100여명은 과연 무사할 수 있었을까. 만일 독자가 틸리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현대사회는 변화를 추구하고 그 안에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각 시·도 지자체에서는 국민의 안전교육 체계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며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실을 가상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안전교육은 일상에서 안전한 행동을 하도록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안전교육의 목표는 안전한 행동의 습관화인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안전에 대한 지식(안다) 습득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안전에 관한 기능(할 수 있다) 교육과 함께 안전을 몸소 실천하는 태도(행한다)교육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안전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인격에 관한 교육이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스스로를 존경하고 타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식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안전태도 및 습관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상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올바른 대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천 교육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한 안전체험교육을 경험하고 느껴 본 사람은 위급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지혜와 슬기를 발휘해 나와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필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백광일(전북119안전체험교관)

"올 명절선물 소방차 한 대 어떠세요"

다음달 11일부터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다. 매년 명절이 되면 선물 품목을 고르는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지, 지인이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하면 선물을 고르는데 더욱 생각이 깊어지게 마련이다.

최근 소방서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화재 취약계층을 선정해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는 인터넷이나 마트를 통해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 거주자는 고령화에 따라 젊은 연령층을 찾아보기 어렵고 60~80대의 고령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고령화 인한 거동불편, 건망증, 위험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가스렌지위에 냄비 등을 올려 놓고 외출, 졸음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지난해 화재 통계를 보면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화재 건수 및 인명피해 건수을 보면은 총 37만9,348건(연평균 4만2,149건), 사망은 2,819명(연평균 313명)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 소방청 주택화재 및 사망자 발생율을 보면 주택화재는 6만9,809건(연평균 7,756건)에 사망 1,363명(연평균 144명)이 발생했다.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 18%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6%(절반)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리고 소방관서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시작한 2012년 2월이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1.5%증가, 주택화재 발생 대비 사망자는 10%가 감소했다.

이처럼 화재로부터 취약한 주택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화재 발생 초기에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가 필수적이다. 화재발생 시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해 목숨을 건진 사례가 국내외에 종종 들려오고 있으며,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량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초기 화재진압에 있어서는 탁월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즐거운 명절 부모님과 친지, 지인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여 감사한 분들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는 것을 어떨지?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기초소방시설을 모든 가정마다 비치할 수 있도록 금년 설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자.

/김혜정(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장)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제보·투고 사회현상이나 일상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 홈페이지 sjbnews.com/커뮤니티/독자투고 게시판 | 이메일 sjb8282@gmail.com

구독신청안내 063) 230-5712

지역	구역	연락처
중 부	인후1동, 인후2동 일부, 인후3동/노동부 청사, 전주고려병원, 인후위브어울림, 인후 한신휴, 유일여고, 기린초, 인후초, 아중리 일대.	010-8640-6855 / 246-6855
서 부	경원동, 고사동, 중앙동, 교동, 전동, 진북동, 풍남동, 다가동, 태평동, 서노송동/ 전주시청, 덕진구청, 시교육청,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국혜성, sk뷰, 혁신도시	010-9397-2328 / 273-1008
서전주	서신동, 효자동4가(서곡지구)/ 롯데백화점, 이마트, KT전북본부, e편한세상, 서신초, 한일고, 서신중, 전주서중, 여울초, 서일초, 서신동 일대.	010-6278-5085 / 276-0034
중화산	효자동1가 일부, 효자동2가~효자동4가, 중화산동/ 도청, 경찰청, 효자신시가지, 전주대, 비전대, 전주박물관	010-2799-1237 / 237-5863
평 화	평화동1가~3가, 동서학동, 서서학동/ 전주교대, 전주교도소	010-8883-5498 / 010-8858-9456
효 자	효자동1가 일부/ 삼천1동~삼천3동, 상산고, 서도프라자, 혜성고	010-8883-5498 / 010-8858-9456
덕 진	인후2동 일부,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전미동/우아동1가, 우아동2가, 전북대, 전북대병원, 고속터미널, 전주역, 전주동물원, 전라고, 솔내고, 우아동3가, 용진읍, 완주군청	010-4611-8069 / 242-5432
완 주	봉동읍 (봉동 전역, 3공단) / 삼례읍	010-8824-9388 / 010-4013-4853
팔 복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 반월동, 장동, 조촌동, 고랑동, 성덕동, 만성지구/ 덕진경찰서, 월드컵경기장, CBS전북방송, 전주한지박물관	010-8627-6325 / 214-0300
남전주	중화산동1가, 중화산동2가 일부, 완산동/ 예수병원, 전주병원, 신흥중, 신흥고, 기전대학, 화산체육관, 근영여고, MBC, 화산풍림, 중화산광진, 석정수펠리스, 남양황실, 한신휴	010-8883-5498 / 010-8858-9456
군 산	군산시 전역 / 소룡동, 산북동	010-2520-9593 / 010-9850-7734
익 산	익산시 전역	010-6687-7734
김 제	김제시 전역	063-548-8866
정 읍	정읍시 전역	010-4654-3600
고 창	고창군 전역	010-6608-6842
임 실	임실군 전역	010-3208-2846
남 원	남원시 전역	010-9068-3077
무 주	무주군 전역	010-6823-2085 / 322-5005
진 안	진안군 전역	010-2433-1721 / 433-8291
장 수	장수군 전역	010-8765-5006
순 창	순창군 전역	010-5612-7239
부 안	부안군 전역	010-7247-3947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새전북신문이 쓰면 大韓民國이 읽습니다.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새전북이 쓰면 대한민국이 읽습니다.]

새전북신문을 읽으면 전북이 보입니다.
새전북이 쓰면 대한민국이 읽습니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새전북신문과 함께하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희망이 커집니다.